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권 1호 (2016년 3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김윤정 · 이옥경 · 이해원 · 조영일 · 이원혜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김아라 · 이승연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전 화 : 051-510-2135

인쇄일 : 2016년 3월 15일
발행일 : 2016년 3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집위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Yale University)

심사위원 : 권미경(U.C Davis) 김근영(서강대학교) 김민희(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김수정(서울대학교) 김애순(연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현정(이화여자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수현(연세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오영희(덕성여자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이경남(동아대학교)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이수진(경일대학교) 이순묵(성균관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은영(한양대구리병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명숙(꽃동네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진경선(연세대학교)
최형성(신라대학교) 한기백(서강대학교) 황순택(충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29, No. 1

March 15, 201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Mee-Kyoung Kwon(U.C Davis)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u-Jung Choi(Yale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9 권 제 1 호 / 2016. 3.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김윤정 · 이옥경 · 이해원 · 조영일 · 이원혜 / 1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김아라 · 이승연 / 25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 47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 63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 83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 101

한국발달심리학회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김 은 영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송 현 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만 5-6세 아동의 분배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회비교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요인을 알아보았다. 참가 아동들은 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 통제조건에 참여하였고 자신과 다른 아동 간에 자원을 분배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아동들이 상대방보다 적게 갖는 불리한 불균등 분배(예, 참가 아동 2: 다른 아동 3)와 균등 분배(2:2) 중 한 분배를 선택해야 했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상대방보다 많이 갖는 유리한 불균등 분배(1:0)와 균등 분배(2:2) 중 한 분배를 선택하였다. 아동의 분배 성향에 주양육자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 사회비교, 마키아벨리즘, 공감 척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참가 아동들은 상대방과의 자원 수의 차이가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에 불리한 불균등 분배보다 균등 분배를 더 자주 선택하였고,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자신의 자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리한 불균등 분배를 더 자주 선택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자원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자원 분배에 대한 선택은 우연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한국 만 5-6세 아동의 사회비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아동의 사회비교는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 및 마키아벨리즘의 지위욕구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고, 공감의 개인적 괴로움과는 부적적으로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5-6세 아동의 사회비교에 대한 실험적 증거와 함께 사회비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사회비교, 공정성, 불균등 회피, 주양육자

* 연구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발달심리 연구실의 연구원, 학부생 연구 보조원,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과 아동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NRF-2015S1A3A2046711).

[†] 교신저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02-2123-2449 , E-mail: hsong@yonsei.ac.kr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자신의 자원을 비교하며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는지를 살핀다. “언니 것이 더 많잖아!”, 형제가 있는 집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수를 완벽하게 세지 못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자원과 타인의 자원의 비율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낸다(McCrink, Bloom, & Santos, 2010).

자신에게 불리하게 자원이 분배된 상황에서 불균등을 인지하는 반응은 만 3세경부터 출현한다(LoBue, Nishida, Chiong, DeLoache, & Haidt 2009). LoBue 등의 연구에서 실험자가 한 아동에게는 두 개의 스티커를, 다른 한 아동에게는 네 개의 스티커를 주어 한 아동에게는 불리한 상황, 다른 아동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두 개의 스티커를 받은 경우, 즉 자신에게 불리하게 자원이 분배된 상황에서(불리한 불균등 상황) 만 3-5세 아동들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반면, 네 개의 스티커를 받은 경우, 즉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원이 분배된 상황(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아동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불리한 불균등과 유리한 불균등 상황이 같은 불균등 상황임에도 아동들이 경험하는 정서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아동들은 불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자원을 포기하기도 한다. Blake와 McAuliffe(2011)의 연구에서 실험자는 A 아동과 B 아동의 접시에 사탕을 놓고 A 아동에게 접시에 놓여진 대로 사탕을 가져갈지 아니면 둘 다 사탕을 안 받을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접시에 상대적으로 적은 사탕이 있는 경우(A 1 : B 4), 만

4-8세의 아동들은 사탕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A 아동의 접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탕이 있는 경우(A 4 : B 1), 4-7세의 아동들은 접시에 놓인 사탕을 갖겠다고 하는 반면, 8세 아동들은 사탕을 포기하였다. 이는 불리한 불균등 분배에 대한 거절은 4세부터 관찰되는 반면, 유리한 불균등 분배에 대한 거절은 8세가 되어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불리한 불균등 회피(disadvantageous inequality aversion)보다 유리한 불균등 회피(advantageous inequality aversion)는 발달단계에서 늦게 출현하며(Blake & McAuliffe, 2011), 어린 연령에서는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 표현까지 한다(LoBue et al., 2009). 하지만, 만 8세 이전에 유리한 불균등 회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만 4세 아동들은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분배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기도 하고(LoBue et al., 2009), 자원의 개수가 적을 경우 만 7세 아동들도 유리한 불균등 회피를 나타낸다(Blake & McAuliffe, 2011). 하지만, 불리한 불균등 회피는 여러 연구에 걸쳐서 아동 초기부터 관찰되는 반면, 유리한 불균등 회피는 8세가 되어서야 일관되게 나타난다.

불리한 불균등 회피와 유리한 불균등 회피의 다른 발달적 경로는 공평 동기와 사회비교 동기의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평 동기는 자신의 자원과 타인의 자원을 같게 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공평 동기는 내가 타인보다 자원을 적게 가진 불리한 불균등 회피와 내가 타인보다 자원을 많이 가진 유리한 불균등 회피를 이끌어 낸다.

반면, 사회비교 동기는 남보다는 적게 가지기 싫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사회비교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서는 남의 우위를 부러워하는 부러움과, 남의 열위를 즐거워

하는 샤텐프로이데(Schadenfreude)인데, 사회비교 동기는 부러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샤텐프로이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사회비교 동기는 불리함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자원 간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 반면,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사회비교 동기는 유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자신과 상대방 자원 간 차이를 늘리고자 한다.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공평 동기와 사회비교 동기 모두 불균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면,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공평 동기는 유리함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사회비교 동기는 유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공평 동기와 사회비교 동기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동기 중 어느 것이 우월하게 작용하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아동들이 유리함을 회피하여 공평하고자 한다면, 공평 동기가 사회비교 동기보다 강하게 작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아동들이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자원을 갖고자 한다면, 사회비교 동기가 공평 동기보다 강하게 작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 5-6세 아동들은 분배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는 공평동기보다 사회비교 동기가 강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Sheskin, Bloom, & Wynn, 2014). Sheskin 등(2014)에서는 다른 아동과 자신 간에 칩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과제를 아동들에게 실시하였다. 아동은 두 분배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데, 한 방식은 자신과 다른 아동 간에 칩의 개수가 동일하게 분배되는 균등 분배이고, 다른 한 분배는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칩을 더 많이 또는 더 적

게 가지게 되는 불균등 분배이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의 예로, 아동은 다른 아동과 2개씩 가질지(2:2) 혹은 아동만 하나 가질지(1:0) 선택해야 한다. 분배 1:0을 고를 경우 분배 2:2의 경우보다 아동이 가지게 되는 자원의 절대적 양은 적지만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아동이 1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른 아동보다 더 많이 갖는 1:0 분배를 선택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공평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아동은 2:2를 선택할 테지만, 사회비교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1:0을 선택할 것이다. 연구 결과, 만 5-6세 아동은 절대적인 자원의 손실이 있는 유리한 불균등 분배(1:0)를 선택하였지만 만 7세 이상의 아동들은 균등 분배(2:2)를 선택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사회비교가 생애 초기에 강하게 작용하고 이후 사회화를 통해서 공평 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의 사회비교를 알아본 최근 연구는 문화에 따라서 사회비교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Kang, Lee, Choi, & Kim, 2013). 카드 뽑기 게임에서 자신의 카드 점수와 상대의 점수를 제시 받고 카드 뽑기 결과를 수락할 지 아니면, 이후에 카드 뽑기 시행을 다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미국 어머니는 자신의 점수에 따른 결정을 주로 하는 반면, 한국 어머니는 자신의 점수와 상대의 점수를 비교하여 점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연구는 사회비교 현상에 있어서 문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인다. 집합적이고 상호의존

적인 동양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서양문화에 비해서 사회비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Gibbons & Buunk, 1999).

한국의 체면 문화 역시 사회비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동양의 체면 문화에서는 자아개념이 '나'보다 '남'에 의해서 규정된다(Leung & Cohen, 2011). 이는 '나'를 규정하는 가치의 핵심이 자신 내부에 있는 서구의 존엄 문화와는 대조된다. 내가 나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은 자아개념이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의한다는 것은 자아개념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체면 문화의 사람들은 견고하지 못한 자아개념을 가지기 쉬운데, 자아개념의 불안정성은 사회비교로 이어질 수 있다(Wayment & Taylor, 1995).

문화는 발달과정에서 일찍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문화 간 비교 연구에 따르면 나라에 따라서 걸음마기 유아의 도움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Callaghan et al., 2011). 이는 아동기 사회비교에 있어서도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서구 아동의 사회비교와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사람마다 문화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라 하더라도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사회비교 정도가 다를 수 있다(Chung & Mallery, 1999).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비교가 다르게 나타난다.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기준 비교보다 남과의 비교, 즉 사회비교를 더 선호한다(Levine & Green, 1973). 마키아벨리즘은 도덕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향성으로(Christie & Geis, 1970),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은 공

평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보다 자신의 이득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 비교와 함께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은 경쟁적 태도로 나타나며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자하는 사회비교를 이끈다(Jonason, Li, & Teicher, 2010).

사회비교는 공감적 요인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비교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정서와는 반대되는 경향성이 있다. 자신의 것이 타인의 것보다 적은 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비교 정서인 부러움은 상대의 기쁨과 대치되는 부정적 정서이며, 자신의 것이 타인의 것보다 많은 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비교 정서, 샤펜프로이데는 상대의 불행에 대치되는 긍정적 정서이다. 따라서 사회비교가 강할수록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아동기에 가장 인접한 환경은 어머니로, 사회비교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어머니의 문화적 성향 및 심리적 특성들이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가치와 성향들은 아동에게 다양한 경로로 전달될 수 있다. 첫째, 타인 판단의 중요성과 같은 체면 문화적 가치를 어머니는 아동에게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대한 모방학습을 통해 아동이 어머니의 가치와 성향을 닮아 갈 수 있다. 셋째, 어머니가 사회적 민감성과 같은 기질적 성향들을 아동에게 유전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목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Sheskin(2015)등의 패러다임

을 차용하여 분배 상황에서 한국 5-6세 아동의 사회비교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 아동들의 사회비교가 미국 아동들의 사회비교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초기 아동기의 사회비교가 문화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사회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자의 심리적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의 체면 문화 경향성, 사회비교, 마키아벨리즘, 공감을 자기보고 설문 척도로 측정하여 아동이 사회비교 과제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반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체면 문화 경향성, 사회비교는 아동의 사회비교와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내적인 가치보다 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어머니의 마키아벨리즘 역시 아동의 사회비교와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어머니의 공감은 아동의 사회비교와 부적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라 예측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만 5-6세 아동 2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중 24명(여, 12명; 평균 연령 만 6세; 연령 범위 만 5세-6세 8개월)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실험절차에 오류가 있거나(1), 반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1) 아동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참여 아동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대가로 기질 및 성격 검사가 제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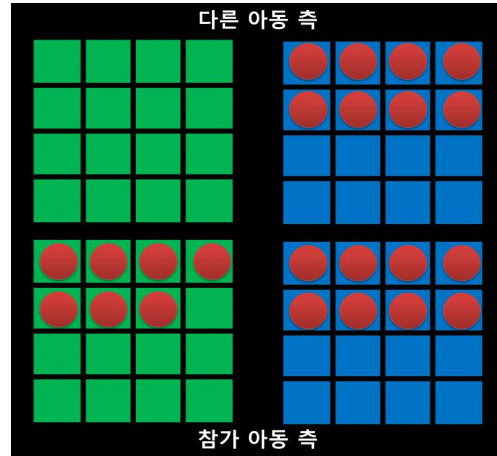


그림 1. 시행의 예(7:0 vs. 8:8)

실험장치 및 도구

책상 위에 초록색 접시 두 개, 파란색 접시 두 개가 놓여 있었다. 각 접시 위에는 칩이 부착된 초록색 혹은 파란색 부직포 판이 놓여 있었다(그림 1). 아동의 왼쪽에는 초록색 접시, 오른쪽에는 파란색 접시(혹은 오른쪽에 초록색 접시, 왼쪽에 파란색 접시)가 놓여 있었다. 실험 전에 각 시행의 칩의 개수들이 부직포 판에 준비되었으며 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접시는 책상 위에 계속적으로 놓여 있고, 시행에 해당하는 부직포 판이 교체되었다. 칩을 담은 통으로는 투명 통 2개가 사용되었으며 참가 아동의 통은 노란색 띠가 둘러져 있었다.

실험 설계 및 절차

서울에 소재한 모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보호자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아동은 대기실에서 실험자와 친숙해 지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은 실험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실험실에

입실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연구를 다음에 오는 모르는 아동과 칩을 어떻게 나눌지 고르는 놀이라고 소개한 후 모은 칩은 이후에 사탕과 바꿀 수 있다고 알려주고, 아동이 초록색과 파란색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4개의 연습 시행과 10개의 본 시행은 대략 15분 동안 진행이 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Sheskin과 동료들(2014)의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전체 시행은 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 통제 조건의 세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 각각은 불균등의 격차(불균등 격차 작음, 불균등 격차 큼)와 사회비교에 의한 절대적 자원의 손실 여부 유무(무손실, 유손실) 요소에 따라 나뉘어 총 8개의 시행이 있었고, 통제 조건에는 2개의 시행이 있었다(표 1).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아동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자원이 적게 분배되는 불균등 분배와 균등 분배 중 하나를 골랐다. 이 때 불균등 분배 대신 균등 분배를 선택하면 자신의 자원의 절대적 손실이 발생하는 유손실 시행(예: 1:1 vs. 2:3)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무손실 시행(예: 2:2 vs. 2:3)이 있었다. 예를 들어, 1:1과 2:3 중 골라야하는 유손실 시행의 경우

참가 아동이 1:1을 선택하면 상대방과 동일한 자원을 가지게 되기는 하지만, 참가 아동이 2개의 칩, 다른 아동이 3개의 칩을 가지는 불균등 분배보다 한 개 칩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2:2과 2:3 중 선택해야하는 무손실 시행의 경우 참가 아동이 2:2을 선택하더라도 참가 아동이 가지는 칩의 개수는 2:3 분배와 차이가 없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아동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자원이 많이 분배되는 불균등 분배와 균등 분배 중 하나를 골랐다. 이 조건에서의 유손실 시행은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불균등 분배를 고르면 절대적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예를 들어, 1:0와 2:2 중 선택해야 하는 유손실 시행의 경우 참가 아동이 1:0을 선택하면 상대방보다는 유리한 자원분배를 받을 수 있지만, 2:2를 선택한 경우보다는 자원의 절대적 수에 있어서 손실이 있게 된다. 반면 무손실 시행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분배를 선택하더라도 자원의 절대적 수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였다. 2:1과 2:2에서 선택해야 하는 무손실 시행의 경우 아동이 2:1을 선택하면 참가 아동이 가지는 칩의 개수는 다른 아동보다 하나가 더 많으면서, 참가 아동이 가지는 칩의 개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무손실 시행의 경우 어느 분배를 선택하든

표 1. 실험 조건 및 시행 종류

		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	통제 조건
불균등 격차 작음	무손실	2:2 vs. 2:3	2:1 vs. 2:2	
	유손실	1:1 vs. 2:3	1:0 vs. 2:2	1:1 vs. 2:2
불균등 격차 큼	무손실	8:8 vs. 8:15	8:1 vs. 8:8	
	유손실	7:7 vs. 8:15	7:0 vs. 8:8	7:7 vs. 8:8

지 아동이 갖는 절대적 자원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균등분배인지 불균등 분배인지에 따라서 상대적 자원의 개수가 다르다. 유손실 시행의 경우에는 불리함을 피하거나(2:3 대신 1:1) 유리함을 추구하는 선택(2:2 대신 1:0)을 하면 자신이 가지는 절대적 자원의 개수는 줄어들게 된다. 유손실 시행에서 절대적 자원의 개수보다 상대적 자원의 개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비교 선호를 알아볼 수 있다.

통제 조건은 두 분배에서 아동과 다른 아동의 칩의 개수가 균등하고(예: 2:2 vs. 1:1) 한 분배가 다른 분배보다 절대적 개수가 적을 때 아동이 자원의 손실이 있는 적은 분배(1:1)를 고르는 반응의 기저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는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관찰되는 손실 분배 선택(예: 2:2 대신 1:0)이 단순 실수 등에 의한 우연적 반응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준거로 사용되었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과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불균등 분배에서 아동과 상대방의 자원 격차가 작은 시행(예: 1:0 vs. 2:2)과 큰 시행(예: 7:0 vs. 8:8)이 있었다. 불균등 격차가 큰 시행은 작은 시행에 비해서 상대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시행으로 사회비교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추측하였다.

실험은 두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 블록에는 같은 수준의 불균등 격차의 5 시행이 포함되었다. 통제 조건은 항상 블록의 세 번째 시행이었고, 나머지 시행들은 블록 안에서 역균형화되었다. 참가아동 중 반은 불균등 격차가 작은 시행 블록부터 시작하였고, 나머지 반은 불균등 격차가 큰 블록부터 시작하였다. 아동기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각 조건과 시행 조합이 하나씩 포함되는 총 10 시행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연습 시행과 본 시행으로 나뉘며, 연습 시행을 통해 아동들이 과제의 규칙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 시행에서 실험자는 초록색 접시와 파란색 접시 위에 각 시행의 분배대로 칩이 부착된 부직포 판을 놓은 후에 “OO가 초록색을 고르면 (아동 쪽 초록색 접시를 가리키며) 이거는 OO가 가지고, (다른 아동 쪽 초록색 접시를 가리키며) 이거는 다른 아이가 가질 거야. OO가 파란색을 고르면 (아동 쪽 파란색 접시를 가리키며) 이거는 OO가 가지고, (다른 아동 쪽 파란색 접시를 가리키며) 이거는 다른 아이가 가질 거야. 초록색을 고를래? 파란색을 고를래?”라고 말한 후 아동이 선택을 하면 아동이 가져가는 칩과 다른 아동이 가져가는 칩에 대해서 물어 아동이 분배 결과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칩을 통에 넣도록 하고, 다른 아동의 칩은 실험자가 다른 아동의 통에 넣었다.

점수화

사회비교 동기에 의한 반응이 1점으로 점수화 되었다. 즉,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아동이 불리한 불균등 분배(예: 2:3)가 아닌 균등 분배(예: 1:1)를 선택할 때 1점으로 코딩되었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아동이 균등 분배(예: 2:2)가 아닌 유리한 불균등 분배(예: 1:0)를 선택할 때 1점으로 코딩되었다.

어머니 문화 및 심리 척도

체면 문화 성향

체면 문화 성향과 관련하여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지 혹은 외부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

는 Leung과 Cohen(2011) 척도의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의 인간적 가치와는 무관하다. (체면 문화 기준 역문항)'를 포함한 4개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정도를 7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였다. 체면 문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3이었다.

사회비교

어머니의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비교 척도(INCOM, 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Scale; Gibbons & Buunk, 1999) 문항의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나는 내 삶에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것들과 자주 비교한다.'를 포함한 11개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였다. 사회비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2이었다.

마키아벨리즘

Dahling 등(2009)의 마키아벨리즘 척도 번안본(이종원, 2011)을 사용하였다. 마키아벨리즘 하위 척도에는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비윤리적인 것도 할 것이다.'를 포함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무도덕적 조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즐긴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된 통제 욕구, '축적된 재물은 나에게 중요한 목표이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된 지위 욕구, '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포함하여 4문항으로 구성된 타인 불신 척도가 있다. 마키아벨리즘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8이었고, 무도덕적 조작, 통제 욕구, 지위 욕구, 타인불신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59, .91, .75, .48이

었다.

공감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반응척도(E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Davis, 1980)의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반응척도는 관점 취하기, 공감적 염려, 개인적 괴로움, 상상력 하위척도에 대해서 각 7개 문항,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친구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의 관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해보려고 한다(관점 취하기)', '나는 꽤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공감적 염려)', '나는 긴박한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개인적 괴로움)', '나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공상에 주기적으로 빠지곤 한다(상상력)'이 있다. 대인관계반응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9, 관점 취하기, 공감적 염려, 개인적 괴로움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37, .69, .75, .78이었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사회비교 반응에 대하여 아동의 성별 및 연령과 관련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으므로, $F_s < 2.93$, $p > .10$, 이어지는 분석에서 성별 및 연령을 합쳐서 분석하였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네 시행의 사회비교 점수($M = 2.750$, $SD = 0.944$)는 우연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t(23) = 3.892$,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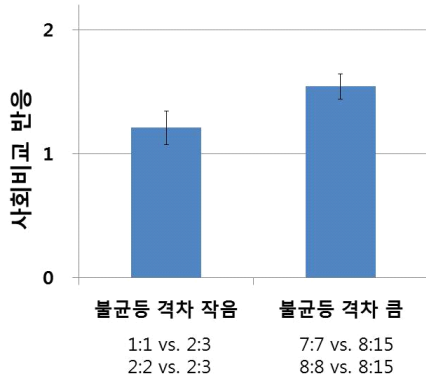


그림 2.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불균등 격차에 따른 사회비교 반응 평균 및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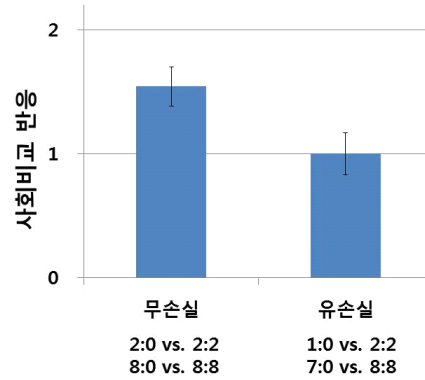


그림 3.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손실에 따른 사회비교 반응 평균 및 표준오차

이는 한국 5-6세 아동들은 다른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갖기보다 균등하게 자원을 갖으려 함을 나타낸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의 사회비교 점수에 대해서 손실 유무(무손실, 유손실), 불균등 격차(작음, 큼)를 참가자 내 요인으로 2x2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손실의 주 효과 및 손실과 불균등 격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 < 1$). 불균등 격차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는데($F(1, 23) = 5.412, p < .05$), 아동들은 불균등 격차가 작은 시행($M = 1.208, SD = 0.658$)보다 큰 시행($M = 1.542, SD = 0.509$)에서 균등 분배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그림 2). 이는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자원과 다른 아동의 자원의 차이가 적을 때보다 클 때 불균등 회피반응이 강하게 나타남을 가리킨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네 시행의 사회비교 점수($M = 2.542, SD = 1.102$)는 우연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t(23) = 2.407, p < .05$).

이는 한국 5-6세 아동들은 다른 아동과 균등하게 자원을 갖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의 사회비교 점수에 대해서 손실(무손실, 유손실), 불균등 격차(작음, 큼)를 참가자 내 요인으로 2X2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불균등 격차의 주 효과 및 손실과 불균등 격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 < 2.41, p > .13$). 손실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는데($F(1, 23) = 5.068, p < .05$), 아동들은 무손실 조건($M = 1.542, SD = 0.779$)에서 유손실 조건($M = 1.000, SD = 0.834$)보다 유리한 불균등 분배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그림 3). 이는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사회비교가 강하게 나타남을 가리킨다. 하지만,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유손실 분배를 선택한 반응($M = 1.000, SD = 0.834$)과 통제 조건의 손실 분배를 선택한 반응($M = .208, SD = .415$)을 비교한 결과, 유리한 불균등 분배 조건에서 손실 분배 선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23) = 3.800, p < .001$). 이는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이 없을 때보다는 사회비

교 반응이 낮게 나타나지만, 우연수준 보다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손실 발생 여부와 불균등 격차 여부와 상관없이 네 시행 전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미국아동들의 선택 반응(Sheskin et al., 2014)과 본 연구의 한국 아동들의 선택 반응을 비교하였다. 한국 아동들이 유리한 불균등 분배를 선택한 반응($M = 2.542$, $SD = 1.103$)은 미국 아동들이 선택한 반응($M = 2.522$, $SD = .297$)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93$. 이는 만 5-6세 아동의 사회비교는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가리킨다.

아동의 손해를 감수한 사회비교 선호와 어머니 문화 및 심리적 특성 간의 관련성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가 어머니의 문화 및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불리한 불균등을 회피하고 유리한 불균등을 추구하는 반응으로 정의하고, 유손실 시행에서 아동들의 사회비교 반응 점수와 어머니 설문척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와 어머니의 체면 문화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458$, $p < .05$). 또한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와 어머니 마키아벨리즘의 지위 욕구 하위척도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520$, $p < .05$), 대인관계반응 척도에서 개인적 괴로움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652$, $p < .001$). 반면,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와 어머니 사회비교 성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 = -.374$, $p = .078$).

논 의

본 연구는 분배 상황에서 한국 5-6세 아동들의 사회비교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사회비교 동기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조건은 유리한 불균등 조건으로, 상대방보다 자원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반응은 적극적 사회비교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국 5-6세 아동들은 절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분배를 선택하였다. 한국 아동들의 이와 같은 사회비교 선택은 미국 5-6세 아동의 사회비교를 관찰한 Sheskin 등(2014)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이는 만 5-6세의 사회비교는 문화 보편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자원 간 격차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반면,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손실 여부가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불균등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따라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론에 언급했다시피 불리한 불균등 회피는 공평 동기와 사회비교 동기가 함께 작용한 반응인 반면, 유리한 불균등 추구는 공평 동기보다 크게 작용하는 사회비교 동기에 의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사회비교 동기와 공평 동기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는 불균등 정도가 크면 불균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반응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아동들은 '내 칩이 남의 칩 보다 얼마나 적나?'가 관심인 듯하다. 반면, 사회비교 동기가 공평 동기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는 불균등 선택에 따른 손실이 있으면 유리한 분배를 선택하는 반응이 줄어든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의 유손실 시행에서 상

대적으로 유리한 분배 선택이 감소하는 것은 자원 손실을 기피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자원이 전혀 분배되지 않는 독점 상황을 기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유리한 불균등-유손실 시행 조건(예, 1:0 vs. 2:2)에서 아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배를 선택할 경우 아동이 한 개의 자원을 가지고 다른 아동이 자원을 가지지 못하여 참가 아동만 자원을 독점한다. 이 경우 아동은 자신의 자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배 선택(1:0)을 덜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아동의 자원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을 기피했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리한 불균등 조건-유손실 시행에서 어느 선택이든지 상대방 자원이 존재하는 시행(예: 2:1 vs. 3:3)을 포함한다면, 아동들의 분배 선택 반응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은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우위에 있고자 하는 동기를 측정하는 조건으로 사회비교에 의한 의사결정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유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예, 2:1 vs. 2:2)에서 아동이 단지 자신이 갖게 될 절대적 자원의 개수에만 관심이 있다면 무작위 반응을, 공평함에 관심이 있다면 상대와 함께 자원을 나누는 분배 선택을, 자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갖는 사회비교를 나타낸다면 자신이 자원을 더 가지는 분배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유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에서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회비교는 절대적 손실도 감수하게 하는데, 유리한 불균등 조건-유손실 시행(예, 1:0 vs. 2:2)에서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처럼 유리한 불균등 조건은 아동의 사회비교를 나

타낸다.

사회비교 동기를 반영하는 유리한 불균등 조건을 기존의 분배 패러다임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이 분배 상황에서 이기적 혹은 이타적 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독재자 패러다임에서 아동들은 한정된 자원 중 몇 개를 다른 아동에게 나누어 줄지 결정하였다(박지숙, 박영신, 2011; Benenson, Pascoe, & Radmore, 2007; Gummerum, 2010). 예를 들어, 분배자 아동은 수령자 아동에게 10개의 자원 중 나누어 줄 개수를 결정하고, 수령자 아동은 그 개수대로 자원을 받았다. 독재자 게임에서 아동이 이기적 분배를 하면(예: 분배자 9: 수령자 1), 아동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분배자 아동이 단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이기적 선택을 했는지, 다른 아동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동의 분배 의사결정을 알아본 Fehr, Bernhard, 그리고 Rockenbach(2008)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자 하는 이기적 마음을 이기고 타인을 배려하여 자원을 나누는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가 타인 지향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진 반면 본 연구는 아동이 자신의 자원보다 타인의 자원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비우호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Fehr 등(2008)의 연구에서의 분배 선택과 본 연구에서의 분배 선택의 비교는 아동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동기들을 구별해준다.

Fehr 등(2008)의 실험 조건 중 '나눔 게임'에서 아동들은 다른 아동과 한 개씩 자원을 가질지(1:1) 아동만 두 개의 자원을 가질지(2:0)를 선택하였다. '나눔 게임'에서 아동이 1:1이 아

닌 2:0을 선택한 경우 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해서 상대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자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분배는 1:1분배 보다 상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양도 많기 때문에 이 선택이 사회비교 동기에 의한 것이라 결론지을 수 없다. 또한, '나눔 게임'에서 손실로 인한 결과는 본 연구의 손실로 인한 결과와 다르다. Fehr 등(2008) 연구에서 자원이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균등을 추구하는 반응(2:0이 아닌 1:1)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는 절대적 자원을 감소시키면서 유리함을 추구하는 선택(2:2가 아닌 1:0)을 측정한 것이다.

Fehr 등(2008) 연구의 조건 중 본 연구의 유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예, 2:2 vs 2:1)과 유사한 조건으로 '친사회 게임'이 있었다. 이 게임에서 아동은 다른 아동과 한 개씩 자원을 가질지(1:1) 아동만 하나의 자원을 가질지(1:0) 골랐고, 약 40% 아동이 유리한 분배(1:0)를 선택하였다. 이 게임과 대응되는 본 연구의 유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에서 아동들이 두 시행 모두에서 유리한 분배를 선택하는 비율은 71%, 최소한 한번 선택하는 비율은 83%였다. 본 연구와 Fehr 등의 연구 간의 다른 점(자원의 개수, 자원의 종류)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연구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분배 선택의 정도 차이는 스위스 아동과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동일한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연구 내에서도 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가 다르므로 인해서 아동 반응의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사탕을 많이 좋아하는 아동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아동이 사탕을 좋아

한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통제 조건의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24명의 아동 중에서 19명이 두 통제 시행에서, 5명이 한 통제 시행에서 많은 양의 분배를 선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분배 자원이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따라 분배 결정이 영향을 받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비교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요인을 우선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사회비교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사회비교 의사결정과 함께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 사회비교 및 심리적 요인-마키아벨리즘, 공감-을 측정하였다. 자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격차를 줄이고 유리한 격차를 늘리려는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 반응은 어머니의 높은 체면 문화 및 지위욕구 성향, 그리고 낮은 정서적 공감과 관련이 있었다.

문화에 따른 사회비교 차이는 미국 아동과 한국 아동 자료의 비교 분석에서 관찰할 수 없었지만, 한국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에 따른 아동의 사회비교 차이는 관찰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가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생각할수록 아동은 높은 사회비교 선호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체면 문화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인에 의해서 자아의 가치를 규정하는 어머니의 사고 및 행동이 양육 상황에서 반영되어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양육자의 문화적 성향 차이가 다른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사회비교 척도와 아동의 사회비교 과제 수행 간의 유의

미한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아동의 사회비교 측정 과제와 어머니의 자기보고 설문 문항이 사회비교의 다른 구인을 측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아동의 사회비교는 분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반면, 어머니 사회비교는 능력과 의견에 대한 비교를 반영한다 (Gibbons & Buunk, 1999). 사회비교의 동일 차원에 대해서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비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마키아벨리즘 지위 욕구 지향성은 아동의 높은 사회비교 선호와 관련된다. 부의 축적이나 성공 지향적인 지위욕구는 외적 가치인데,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포함하여 외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타인의 안녕과 같은 도덕적 신념은 등한시한다. 어머니의 높은 지위 욕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키아벨리즘이 높을수록 사회비교를 추구한다는 기존 연구 (Levine & Green, 1973)는 어머니의 높은 지위욕구가 어머니의 사회비교를 통해서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비교와 아동의 사회비교 간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높은 마키아벨리즘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높은 지위 욕구는 자신의 이득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특징을 반영하므로 아동은 어머니의 가치 체계를 내면화 하여 물질적 우위를 취하고자 자원의 상대적 양을 확보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가 개인적 괴로움을 높게 보일수록 아동들은 사회비교를 덜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서적 공감을 반영하는 개인적 괴로움은

이타성과 정적으로 관련된 대(설선훈, 이민우, 김학진, 2014). 정서적 공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타인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자녀는 타인의 안녕 및 공평성을 고려하는 행동 양식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분배 상황에서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 현상과 함께 사회비교 발달에 대한 양육자 영향 요인에 대한 규명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본 연구 결과의 반복검증 및 확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원의 분배 상황 이외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비교 (Steinbeis & Singer, 2013)의 발달, 상대방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비교 (Blanton, Crocker, & Miller, 2000)의 발달, 연령에 따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 발달 등을 검증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지숙, 박영신 (2013). 독재자 게임으로 살펴본 아동의 이타적 행동의 발달, 성차와 조망수용의 역할.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6(1), 167-186.
- 설선훈, 이민우, 김학진 (2014). 이타적 강화학습과제를 이용한 이타성의 측정. *심리학회지: 일반*, 33(2), 485-507.
- 이종원 (2011). 개인-조직 부합도와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nenson, J. F., Pascoe, J., & Radmore, N. (2007). Children's altruistic behavior in the

- dictator gam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3), 168-175.
- Blake, P. R., & McAuliffe, K. (2011). "I had so much it didn't seem fair": Eight-year-olds reject two forms of inequity. *Cognition*, 120(2), 215-224.
- Blanton, H., Crocker, J., & Miller, D. T. (2000). The effects of in-group versus out-group social comparison on self-esteem in the context of a negative stereotyp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5), 519-530.
- Callaghan, T., Moll, H., Rakoczy, H., Warneken, F., Liszkowski, U., & Behne, T., et al. (2011). Early social cognition in three cultural contex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6(2), 1-142.
- Christie, R., & Geis, F. L. (1970). *Studies in Machiavellianism*. New York: Academic Press.
- Chung, T., & Mallery, P. (1999). Social compariso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esteem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Psychology*, 18(4), 340-352.
- Dahling, J. J., Whitaker, B. G., & Levy, P. E.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ew Machiavellianism scale. *Journal of management*, 35(2), 219-257.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Fehr, E., Bernhard, H., & Rockenbach, B. (2008). Egalitarianism in young children. *Nature*, 454(7208), 1079-1083.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The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Gummerum, M., Hanoch, Y., Keller, M., Parsons, K., & Hummel, A. (2010). Preschoolers' allocations in the dictator game: The role of moral emoti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1), 25-34.
- Jonason, P. K., Li, N. P., & Teicher, E. A. (2010). Who is James Bond?: The Dark Triad as an agentic social style.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8(2), 111-120.
- Kang, P., Lee, Y., Choi, I., & Kim, H. (2013). Neural evidence for individual and cultural variability in the social comparison effect. *The Journal of Neuroscience*, 33(41), 16200-16208.
- Leung, A. K.-Y., & Cohen, D. (2011). Within- and between-culture var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cultural logics of honor, face, and dignity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3), 507-526.
- Levine, J. M., & Green, S. M. (1973). Social comparison of grades: The influence of mode of comparison and machiavellian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1(1), 67-72.
- LoBue, V., Nishida, T., Chiong, C., DeLoache, J. S., & Haidt, J. (2009). When getting something good is bad: Even three-year-olds react to inequality. *Social Development*, 20(1), 154-170.
- McCrink, K., Bloom, P., & Santos, L. R. (2010). Children's and adults' judgments of equitable resource distributions. *Developmental Science*, 13(1), 37-45.
- Sheskin, M., Wynn, K., & Bloom, P. (2014).

- Anti-equality: Social comparis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130(2), 152-156.
- Steinbeis, N., & Singer, T. (2013).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n social emotions and behavior during childhood: The ontogeny of envy and schadenfreude predicts developmental changes in equity-related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5(1), 198-209.
- Wayment, H. A., Taylor, S. E., & Taylor, S. E. (1995). Self-evaluation processes: Motives, information use,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3(4), 729-757.
- 1차원고접수 : 2016.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6. 02. 24.
최종게재결정 : 2016. 02. 29.

The parental influence on social comparison in 5- to 6-year-old Korean children

Eun Young Kim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oonchunhyang University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social comparison of 5- to 6-year-old Korean children. Children chose one of two options in which distributions had already been made between participating children and anonymous children. In the dis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had to choose the disadvantageous inequality option (2:3) or the equality option (1:1). In the 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had to choose the advantageous inequality option (1:0) or the equality option (2:2). We also measured the mothers' face culture orientation, social comparison, Machiavellianism, and empathy. In the dis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choose the equality option when the magnitud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tributions was large, than when the magnitude of the difference was small. In the 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choose the advantageous inequality option than they were in the control condi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5- to 6-year-old Korean children have social comparison concern. The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f the children wa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factors pertaining to their mother; a high level of face culture orientation, high desire for status and low level of personal distress. The current study provides experimental evidence with regard to the social comparison of Korean children as well as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caregiver as an influential factor in this process.

Key words : social comparison, fairness, inequality aversion, caregiver